



계림1동, 마사회 광주지사와 후원 협약

광주 동구 계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와 지역 상생을 위한 착한가게 후원 업무협약을 맺고 5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외계층 지원을 목표로 임택 구정장, 김영순 위원장, 정지연 지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순 위원장은 “돌봄 이웃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나눔 봉사를 약속해 준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인 우리 이웃들이 마을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정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지역과 상생을 실천해온 한국마사회 광주지사가 이번 협약을 통해 착한가게 후원 파트너로 활약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전남도농기원, 농업인 산불예방 캠페인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9일 전남4-H본부 및 농촌지도자회 임원과 시·군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캠페인은 산불예방 인식을 높이고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영농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금지 등 예방 수칙을 강조하고 농업인의 실천을 당부했다.

농업인 학습단체(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4-H연합회)를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감시 등 캠페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홍재 전남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은 “최근 27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전년에 비해 10건이 더 많다”며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광주공항 방문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8일 광주공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9일 광주공항에 따르면 윤 사장은 이날 “안전과 보안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며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여항 광주만의 멋과 특색을 살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광주공항을 활성화하자”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제공**



김혜자, 성금 1억 기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배우 김혜자(사진)가 선행을 펼쳤다.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은 “김혜자님이 시리아·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기부금은 김혜자의 뜻에 따라 전역 시리아·튀르키예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기본적인 식수·위생·보건 사업, 식량과 생필품 지원, 임시대피소 지원, 아동보호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혜자는 “대지진 소식을 접하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과 보금자리를 잃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마음을 보태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느새 한 달이 지나 많은 분들

의 기억에서 벌써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조기 긴급구호만큼이나 재건 복구를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 많은 분이 그곳의 아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혜자는 이번 시리아·튀르키예 대지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긴급구호·복구사업에 앞장서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다.

지난 2005년 파키스탄 지진 당시 이재민들을 위한 기부금 전달을 시작으로 2015년 네팔 지진 때에도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어 2010년에는 아이티 대지진 참사의 현장을 직접 찾아 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아동들을 만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뉴시스**



북부경찰, 치안 문제 발굴 주민 설명회

광주 북부경찰은 체감안전도 향상 및 범죄·생활안전 치안 문제 발굴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이번 설명회는 북구 주민자치회장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북부경찰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계획’이라는 주제로 △주민 불안요인 의견 수렴 △북부경찰서 추진 CPTED 사업 설명 △탄력순찰 참여 홍보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부경찰은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종합해 우선 추진 순위를 선정, 관련 기관과 협력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환경 개선·범죄 예방에 힘써 안전한 북구·빈틈없는 치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광산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캠페인

광주광산경찰(서장 반기수)은 9일 신가동 큰별초등학교 정문 등 통학로에서 경찰관(교통·여청·수원지구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광산구청, 학교 관계자 등과 합동으로 등굣길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로 확보, 횡단 보도 이용 등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포돌이·포순이 캐릭터 연필·볼펜 등 교통안전 홍보용품도 함께 배부했다.

반기수 광산경찰서장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통학로 주·정차 위반차량 등 위험요소 사전예방에 힘을 모으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등을 실시해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동부소방, 전통시장 안전 캠페인 진행

광주 동부소방은 지난 8일 대인시장 일원에서 시장 내 점포 자율점검인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이날 캠페인은 점포 내 화재위험으로부터 자율점검 및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포 내 상인대상으로 화재예방 자율점검표 배부 △부주의 화재(담배꽂초, 음식물 조리 등) 예방 주의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안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매뉴얼 공유 △노후소화기 폐기 교체 홍보 △소화기 사용법 및 안전관리·주의사항 등이다.

광주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시장 내 점포뿐만 아니라 우리 집 안전을 위해서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남부소방, 자원순환시설 안전대책 추진

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최근 폐기물 시설 등 자원순환시설의 화재가 잇따름에 따라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사진)

9일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 안전대책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폐기물 처분시설 6개소, 하수 등 처리 시설 4개소, 고물상 9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화재안전조사를 시행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4월에는 자원순환 관리부서와 간담회 등을 통해 보관·적합 폐기물 화재 시 환경·수질오염 방제 등 조치 방법을 협의한다.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폐기물 시설 화재예방조치를 안내하는 등 유관기관과 안전 관리 협조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강주비 기자**

송가인, 2년 연속 ‘한국문화재단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사진)이 2년 연속 한국문화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9일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송가인이 2년 연속 한국문화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홍보대사로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송가인은 지난해 2월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문화재단 홍보대사로 발탁됐다.

이에 ‘인천국제공항 명예수문장’ 행사에 명예수문장 활동을 비롯해 한국문화재단 홍보에 앞장서왔다.

지난 8일 재위촉 간담회에 참여한 송가인은 “지난해 재단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전통문화를 알리는 역할에 자부심을 느꼈다”며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뉴시스**



한편 송가인은 지난해 전국투어 콘서트와 생일 팬미팅, 디너쇼 등 활발한 활동으로 팬들과 만났다.

지난달에는 KBS 50주년 맞이 ‘아침마당’ 녹화를 위해 하와이에 출국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